

日총리 “한국서 일어난 일 상상 못해”...美국방 “역동적 시기”

도쿄 면담서 미일동맹·방위장비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 논의 美국방, 日방위상에 “한미일 협력...한·일의 美역지력 철통”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에서 한국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아무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0일 일본을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만나 “세계는 주간 단위로 매우 빠르게 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계엄 사태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붕괴 등 최근 발생한 일이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면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이시바 총리가 지적한 대로 지금은 매우 역동적인 시기이며 일본의 견실함에 감사한다”며 미일 동맹이 역대 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임 기간 성과를 언급하면서 미일 동맹이 이전보다 강력해졌다고

평가하고 “한국, 호주, 필리핀 등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많은 협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와 오스틴 장관은 한중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미일 동맹 역지력과 대처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미일 동맹 지휘 통제 향상, 방위장비와 기술 협력 추진,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네트워크 강화를 지속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고 외무성은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이시바 총리와 면담에 이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도 회담했다.

오스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도발 행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강압적 행동 등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핍고 이러한 도전에 자신감과 단호한 결의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역사적인 3자 협력을 진전시키고자 하고 있다”며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지력이 철통같다고

덧붙였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오스틴 장관이 지난 4년간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해 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미일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도널

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앞서 미일 동맹 대처력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각국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을 거듭 나타내려는 의도”라고 해설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 정치적 도전을 헤쳐 나갈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만한 변화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일본 방문 일정을 짜면서 한국도 찾는 방안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태 이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일본에서 양국 외교·국방 당국 실무 협의체인 ‘미일 확장억제 대화’를 연다.

미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해 역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이날 도쿄에서 필리핀과 함께 첫 해양 협의를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시리아 군병원 영안실에 ‘고문 흔적’ 시신 40여구 발견

알아사드 정권 인권침해 범죄 증거...반군, 고문 관련자에 현상금

2대에 걸쳐 시리아를 철권 통치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인권침해 범죄의 증거가 또 발견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알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시리아 반군은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 교외에 위치한 하라스타 군 병원에서 시신 40여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반군이 공개한 영상 및 사진에 따르면 피가 묻은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들은 냉동실 안에 쌓여 있었다.

시신들의 부패 상태는 상이했지만, 일부 시신의 얼굴과 신체에선 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

반군은 군 병원 직원의 제보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반군 병사 무함마드 알 하즈는 “시신 보관소의 문을 열자 끔찍하게 무서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고문과 관련한 증거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전날 반군이 공개한 다마스쿠스 인근 세드나야 교도소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사람의 뼈를 부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철제 압축기가 확인됐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30년간 집권한 부친에 이어 시리아를 철권 통치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범죄를 저질렀다.

2011년에는 반정부 시위대에 총을 발포하는 등 강경 진압했고, 시위가 무장반란으로 커지자 염소·사린 가스 등 화학무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알아사드 정권의 군과 경찰 등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10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권 단체 국제 엠네스티(AI)가 ‘인간 도살장’이라고 규정한 세드나



세드나야 교도소 사람의 뼈를 부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철제 압축기가 확인된 세드나야 교도소. /UPI=연합뉴스

야 교도소에선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만 3만명의 수감자가 고문과 영양실조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수감자들은 군사법원에서 1-3분 만에 형식적인 재판을 받은 뒤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사법질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감자들은 정기적으로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리아 반군의 주축 세력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삼(HTS)의 수장인 무함마드 알 졸라니는 이날 고문 등 인권침해 범죄와 관련된 군과 정보기관 간부들에 대해 현상금을 걸었다.

알 졸라니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시리아 국민을 고문한 범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기부자와 만찬 행사...입장료 14억

슈퍼팩 ‘마가’ 주최로 진행...취임식 전날에도 거액 기부자와 만찬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9일 거액의 입장료를 낸 기부자들과 만찬 행사를 한다.

이 행사는 트럼프 당선인 측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주최하는 것으로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자 정권 인수팀이 꾸려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된다. 워싱턴 포스트(WP)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초대장 사본에는 만찬 행사 입장료는 1인당 100만 달러(약 14억3천만원)에 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더 이상 마가를 위한 모금이나 개인적인 지출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가 대변인은 거액을 모금할 수 있는 마러라고 만찬 행사의 목적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WP는 전했다. 부자들이 거액을 기부함으로써 트럼프 당선인에게 ‘눈도장’을 찍을 기회는 하나 더 남았다.

바로 내년 1월20일 트럼프 당선인의 47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 만찬이다.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배포한 초대장에 따르면 이 만찬에는 트럼프 당선인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참석하며, 100만 달러를 기부하거나 200만 달러를 모금하는 지지자들에게는 만찬 선호 좌석이 포함될 6장의 티켓이 제공된다.

한편 2017년 취임식 때 취임식 준비위와 트럼프 가족이 관리하는 업체 2곳은 부실한 기록 관리와 기타 남용 의혹으로 소송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